

광주시, '인공지능 사관학교' 전문인력 305명 배출

제5기 성과 발표회·수료식 성료
10개월간 이론·실무 교육 진행
52명 조기 취업 실적 성과 거둬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등 주력"

광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중심 'AI 사관학교'가 지난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AI 전문인력 305명을 배출했다.

26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기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디지털본부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AI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행사는 사관학교 성과 보고, 교육생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강,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주)엘리스그룹, 대신정보통신(주), 쌍용정보통신(주) 등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열려 수료생들에게 구인 정보 제공, 현장 면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지난 10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인공지능사관학교 5기 교육생 등이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사관학교 5기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인공지능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개월 간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AI 이론과 실무역량을 모두 갖추 수 있었고, 현재는 동료 교육생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교육생으로 선정된 4명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CT 전시회인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관 기회를 얻

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5기 사관학교는 산업현장과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해 총 1300여 시간에 걸친 AI 교육 및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 내외 30여개 AI 기업과 협력해 60건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교육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끌어올렸고, 이외에도 '모의면접', 선후배 네트워킹 행사인 '커넥팅 데이', 교육생과 AI 기업간 간담회인 '기업 브릿지데이' 등 교육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5년간 탄탄한 AI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5기까지

총 122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 AI 사관학교는 1~4기 졸업생 68%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이번 5기는 52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학습과 기업 실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NVIDIA)의 딥러닝 프로그램(DLI)을 제공하고, 한국IBM, (주)데이터솔루션 등의 기업과 협력해 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최근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연이어 광주를 찾아 협약을 맺었다. 이는 우리 광주의 또 다른 기회이자 그동안 추진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성과의 주역인 만큼 앞으로도 광주는 AI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진행될 제6기 AI 사관학교 6기에는 △교육과정 확대 운영 △수준별·단계별 교육 운영 △수료생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탄탄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시동 건다

전략수립·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초전도 도체 연구시설 설립 추진

전남도는 26일 '전남 인공태양 유치 전략수립 및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과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 기술이다. 이에 세계 각국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인공지능(AI) 활용 증가에 따른 대용량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태양 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한전과 300개 이상의 에너지기업이 입주한 나주에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태양 산업생태계 구축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498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KENTECH)에 '초전도 도체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기획과제는 서울대,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주도하며, 전국 핵융합 산·학·연을 대상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역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인공태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전남을 인공태양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과제 착수 보고회에는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에이블퓨전, 금릉테크 등 인공태양 주요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주수 서울대 교수는 "이번 기획과제가 인공태양 에너지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27~29일 운영

광주시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상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를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2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는 더좋은커피협동조합, (주)처음한과, (주)바른핑거스 등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개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포도존, 플레이존, 전시존, 체험존 등에서 제품 전시와 체험을 통해 우수성을 알린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제품을 직접 시음·시식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퀴즈와 토크이벤트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히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이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동

20개 사업에 1333억원 투입
난방비 지원·돌봄 강화 추진

전남도가 올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동절기 보건복지종합대책으로 20개 사업에 133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발굴한 위기 가정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연계해 1인가구 기준 생계유지비 월 71만3000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혜택을 동시에 누리도록 더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전남도 명품 복지브랜드 '우리동네 복

지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하고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생활안정금 최대 70만원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최대 150만원 지원 등 두터운 복지 지원을 펼친다.

한파 등으로 질병·부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돌봄서비스 자격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는 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등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김장김치 5500박스 배부, 연말연시 기부금 모금액 114억 원 달성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집중한다.

모든 시군 9275개 경로당에는 시설을 찾는 어르신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 난방

비를 월 40만원, 양곡비를 월 5만2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경로당별로 발생하는 운영비 잔액은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밑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노인복지관 등 138개 경로식당에 무료 식사 제공, 등록장애인 6500명에는 상시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가사·이동보조 등 겨울철 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한다.

또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5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랭질환자 발생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복지기동대TV' 유튜브 채널 오픈

전남마을방송국과 협업

전남도는 복지기동대의 따뜻한 활동을 기록하고 알리는 소통 채널인 '복지기동대TV'를 26일 전남마을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TV는 전남도와 전남마을방

송국이 협업하고 목포, 영광, 고흥 등 마을활동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협업은 주민 주도의 돌봄공동체 문화를 전하는 '전남마을방송국'과 이웃이 이웃을 살피며 동네 인적 안전망을 확보

오지현 기자

전남 국립종자원, 벼 보급종 2625톤 공급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산 벼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2625톤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겠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 물량 2625톤은 5품종으로 모

두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다. 전남지원에서 생산한 새정무 2216톤, 백옥찰 199톤과 전남지원에서 생산하지 않았지만 전남도 농업인을 위해 적극행정 일환으로 신동진 80톤, 영호진미 50톤, 동진찰 8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공급 예정이었던 조생종 '조명1

호'는 수매(종자)검사 결과 전량 불합격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

신청 종자는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0일부터 3월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오는 12월 말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1533-8482)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